



임마누엘 [은혜호] Vol.11, No.1, May.1, 2016

Emmanuel

말씀의 창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12)

“HOW CAN I REPAY THE LORD FOR ALL HIS GOODNESS TO ME?” (PSALM 116:12 NIV)

Contents

Vol.11, No.1, May. 1, 2016

I. 행진시리즈

02	말씀의 창 - 시편 116:12
04	담임 목사 칼럼 - 은혜를 아십니까?
06	믿음의 선진들 - 대부흥사 김익두 목사 영혼 사랑의 생생한 현장
08	Alviso Neighborhood Good News Club
12	선교 현장 보고서 - 이 시대 문명과 IT 선교
14	청교도의 후예들 - 존 위클리프
16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과 신앙적인 자녀교육
18	양화진 선교사 이야기 - J.P. 캠벨

II. 실만한 물가

20	전도 팁 -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22	임마누엘 레시피 - 양념장에 쓱쓱 비벼 먹는 취나물 밥
24	인터넷과 아이들 - 인터넷 정수기
26	물댄 동산 - 약속을 끝까지 믿으라
28	성경속의 식물 - 우슬초
30	시가 있는 풍경 - 내가 나를
31	크리스천 명언 - 마틴 루터
32	임마누엘 카툰 - Throne of the Heart
34	음식 상식 - 미세먼지 해독제
36	초대의 글 - 가정 안에서 성경적 자아 확립의 중요성

III. 임마누엘 사람들

38	나의 사랑하는 책 -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천사도 흠모하겠네
40	부활의 증인 첫번째 - 이제는 제가 바라는 미래가...
42	부활의 증인 두번째 - 부르심 Calling
44	2015, 인도 미전도 종족 단기 선교 보고서
46	성경 일독 간증 - 살아 있는 말씀으로 살아 있는 삶을
48	나의 노래 - 찬양하는 삶
50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 은혜 없이는
52	에녹과의 만남 - 한 달에 두 번 성경 통독
54	찬양 팁 - 오늘도 성전의 뜰만 밟고 가시나요?
56	임마누엘 한국 학교 글 잔치 - 만화 그리기, 발 없는 말이...
58	부서 소개 - 열방을 향해 비상하는 해외 선교부
60	건강과 식생활 - 아리조나 인디언 마을의 자연식품과...
63	사진 묵상 - 오직 예수
64	임마누엘 인터뷰 - 아름다운 청년, 신정환 형제
66	크리스천 영화방 - 마션(The Martian)



은혜를 아십니까?



지난 2월초에 새벽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로비에서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며칠 전에 직장을 잃었다고 하시면서 뜻밖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자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기대가 된다고 하시며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분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시간에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분이며 은혜의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으셨습니다.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가 되기 위해 성품적, 지식적, 경험적 면모가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분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분인데, 목회자의 리더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며 살아가는 분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임을 배웠다고 하는 고백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잘나서 잘사는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방금 윈 숨도, 한 조각의 햇볕도, 빗방울 하나도, 길가에 풀 포기 하나도, 곡식 한 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두 부류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마5:45).

‘부가가치세’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유머집에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내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방불패’는 뭘까요?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 방위 출신입니다.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자주 부르는 찬송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와 함께, 복음 찬송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값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시겠지요. 저도 세월이 흐르며 점점 더 깊이 느끼는 것은 ‘은혜 없이는’ 제가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상당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죄와 허물이 많고 수시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수없이 실망시켜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시고 저의 삶과 목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이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며 깨닫습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마6:1, 4, 6, 8, 9, 14, 15, 18...) 예수님 때문에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로 담대히 살아가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삽시다. 우리에게는 은혜는 속히 잊고 원한은 두고두고 간직하는 속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술로 찬송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 손원배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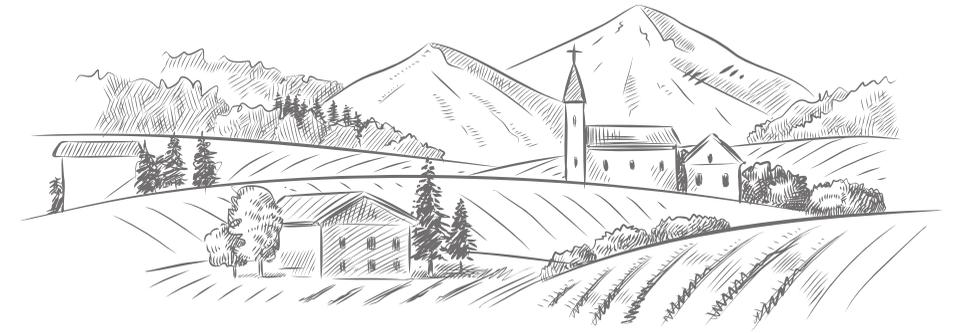


안악골의 호랑이, 김익두 목사 (1874년-1950년)

[개망나니로 살다 예수 믿고 새사람 돼]

김익두 목사는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여 16세 때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말았다.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부친은 몸져누워 그 길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시장에서 일하던 김익두는 안악읍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사람의 돈 보따리를 주워 돌려주었고, 주인은 그를 상점 점원으로 채용하였다. 생활이 안정되어 가정을 이뤘지만, 보증을 섰다가 모든 재산을 잃고 낙망한 김익두는 술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 불량배들과 패싸움을 벌리고 사람들을 괴롭히자 ‘개망나니 익두’,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불렸다. 불꽃 같은 열정이 빛나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건달처럼 행동했지만, 의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망나니처럼 살고는 있었지만, 진리를 찾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한때 사찰에 들어가 얼마 동안 불도에 심취하기도 했다.

27세 되던 1900년 봄, 친구의 전도로 안악군에 있는 금산교회에 나갔다. 그러나 그전에 스왈렌(WILLIAM SWALLEN) 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라고 하자, 전도지에 코를 풀어 길바닥에 내팽개친 적이 있었다. 그때 스왈렌 선교사가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 썩어오!” 이 한 마디가 교회를 찾게 한 계기가 되었다. 김익두는 예배당에 나가면서 술을 끊었다가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 술을 마시고 만취해 집에 돌아와서 괴로워하던 중 비몽사몽간에 불덩어리가 가슴 속에 떨어지는 신비 체험을 한 후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1901년,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스왈렌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기도와 성경 탐독 생활을 계속하는 한편 동네마다 다니며 전도하였다. 영원한 진리를 찾아 변화된 김익두는 그동안 자신의 그릇된 삶을 애통하며 성경,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전도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 “예수 귀신이 씌었다”고 욕하며 핍박하였다. 사람들이 김익두의 변화를 믿으려 하지 않자 마침내 그는 동네에 ‘김익두 죽다’는 방을 붙이기에 이른다.



[회개와 구원 눈물 대중에게 옮겨붙어]

김익두의 개과천선을 입증하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는 유명한 일화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김익두가 정말 죽었는가 시험하기 위해 김익두의 얼굴에 구정물을 퍼부었다.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으나 이내 감정을 다스리고 이 말을 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김익두가 전도사 시절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개 너머 교회로 가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취객이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느냐?”며 시비를 걸고 때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맞고 있다가 자신이 김익두라고 말하자, 취객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이때 김익두는 이 말을 하고 취객을 부흥회에 데려 갔고, 그는 후에 예수 믿고 훌륭한 장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스왈렌 선교사의 지도를 받은 김익두는 1903년 신천 서북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해 1911년 목사 안수를 받고 신천 서북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다. 김익두 목사가 본격적으로 부흥 사역에 나서게 된 것은 1919년 3.1운동 직후였다. 그의 부흥 운동은 약 20년 동안 전국을 휩쓸었고, 시베리아와 일본까지 성령 폭발을 일으켰는데 이는 부흥회 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적이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20년 6월 평양 연합 부흥 집회에는 3천 명을 수용하는 장대한 교회 예배당이 좁을 정도로 대중이 몰려들었고, 같은 해 10월 서울 승동교회에서 열린 일곱 교회 연합집회에는 1만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성경 읽은 은혜보다 큰 은혜 없었다]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하여 치유받은 사람과 은혜받

고 거듭난 사람은 수없이 많다. 그가 가진 부흥회 집회는 대략 776회, 설교 28,000회, 교회 신축 150개 소, 유치원 120개 소를 세웠다. 또한, 그의 감화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나 된다. 김익두 목사는 신약 성경을 100번 읽은 후 세례를 받았고 성경 읽기는 평생 이어졌다. 그는 구약 성경을 백번, 신약성경을 천 번 읽었다고 한다. 김익두 목사는 눈물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다. 그는 성경을 통해 예수의 심정을 읽었다. “나는 4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장면을 상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성경 글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금식도 많이 해보고, 이적도 많이 체험해 보고, 부흥 집회도 많이 해보았으나 성경을 읽어 얻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깊이 깨달았다.”

1950년 10월 14일 김익두 목사는 신천 서북교회에서 패주(편집자 주: 싸움에서 져서 달아남)하는 공산군에게 피살당했다. 순교 당일 신도 한춘근(김익두 목사의 업적과 일대기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자)이 인민군이 교회로 올 것이니 피하라고 애원했으나 김 목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기도회를 마치려는 순간 공산군들이 들이닥쳐 총을 들이댔고 김익두 목사는 이날 신도 5명과 함께 순교했고, 그해 11월 29일, 김 목사의 시체는 안악으로 가는 고개 너머 산 중턱에 안장되었다. 김익두 목사에 대해 좋지 않은 평도 있다. 미신적 신앙소유자, 무식한 목사, 신사 참배자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통해 예수의 심정을 체휼한 진정한 예수 제자였다.

작은 마을,

알비소 굿뉴스 클럽 이야기



우리 교회 건너편 뒤 쪽에 알비소라는 작은 히스패닉 마을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폐허 같은 데도 있고 새집도 들어서 있고 두 개의 작은 구멍가게와 하나의 학교와 작은 도서관 그리고 옷 센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이곳은 마약으로 인해서인지 가정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더러더러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21의 말씀과 함께 길을 열어 주셨고, 찬양과 성경 암송, 성경 레슨, 리뷰 게임 등으로 이어지는 굿뉴스 클럽이 2년 반 전 2~3명으로 시작되면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올 때면 캔 푸드를 가지고 집사님들과 함께 어린이 가정들을 방문하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자라면 애들 장래에 가장 큰 복이랍니다”라고 하며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고 온 집안에 꽉 채워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집중력 장애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있기도 해서 진행 과정이 어려워 이리 저리 기우는 폭풍 속의 난파선 같이... 진땀이 나고 뼈가 다 녹는 듯하였습니다.



그렇게 친해지기 힘든 아이들도 있었지만, 어떤 아이는 굿뉴스 클럽을 참 좋아하여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싶어 하였습니다. 성당을 다니던 그 아이 엄마도 딸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스페인어 성경을 어디서 살 수 있느냐고 물어서, 저희가 전달해 준 성경을 읽으며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실을 항상 깨끗하게 치워놓고 저희를 반기며 “알비소를 위해 너무 좋은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문제 있는 가정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을 찾아와 주니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세요...’

지난 가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말씀을 조용히 잘 듣고 클럽을 좋아해서, 집사님들이 클럽으로 데려오면 마구 뛰면서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간증들도 이따금 하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한 아이는 예수 영접을 작년에도 했는데, 자기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제목을 나누기도 하였고, 또 다른 어떤 아이는 확실히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심각하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굿뉴스 클럽이 끝난 뒤 12살된 여자 아이가 등과 가슴이 아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며 전날 밤에 가족들의 일로 걱정하며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말하면서 엄마와 함께 울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고 하며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보여주었던 그 엄마도 스페인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같이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무 감격스러워 했고, 그 다음주에 아이가 와서 하는 말, “선생님, 제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이번도 또 굿뉴스 클럽을 마치고 가려 할 때에 그 집 엄마 말이 17살 난 어떤 여학생이 갈 곳이 없어서 5일 동안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보호기관으로 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소망 없이 마치 가시성 굴에 걸린 어린양과 같이 앉아있는 아이에게 우리는 다가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아이는 오랜 시간 끝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집 엄마도 울고 우리 모두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폴리나가 하는 말 “선생님, 내가 뒤에서 내내 기도하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모아주신 캔과 과일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알비소의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C 군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기르는 이 아이는 학교와 가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할머니가 속상해 하시길래 우리는 함께 모두 손잡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중고등부 선생님을 허락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눈을 뜨니 할머니 얼굴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 있었습니다.

심방갈 일이 있어 집사님과 함께 G 군을 심방갔다가 불교 신자인 태국계 엄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받아들이며 저희가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민족이 다른 관계로 우리 교회로 올 수 없었고 다른 교회를 같이 찾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5일 동안의 5 DAY CLUB 때, 집사님들은 뜨거운 날 알비소 거리를 방문, “꼭 아리조나의 인디언 선교지에 온 것 같아” 즐거워하시며 새로운 아이들을 만났고 선교부원들과 지역 봉사부원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알비소 공원에서 베풀어진 햄버거 파티로 부모님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의 튜터링 캠프 때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집사님들과 청년들 덕분에 어떤 아이의 하는 말, “내가 더 똑똑해졌어요, 언제 또 배워 줄 수 있어요?”

지난해 10월 10일 내지 선교부 주최로 이란, 몽골, 미얀마, 아프간 교회분들을 초청하여 다민족 선교대회를 가졌을 때에 알비소 굿뉴스 클럽 어린이들이 찬조 출연으로 초청받았는데, 과연 아이들을 누가 데리고 올지, 또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잘 돌볼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하여 울동을 연습시키고, 행사 당일 올 것을 리마인드 해 주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



고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과 울동을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잘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교회에서 오신 분으로부터 자기가 사는 시니어 아파트에도 와서 공연을 해줄 수 있냐는 제의를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굿뉴스 클럽에 참여하면서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적인 문화니까 자연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뜻밖에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 교회와 기독교 환경에서 동떨어진채 생활 하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은 복음은 커녕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을 기회조차 없이 방치되어 있는 듯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너무 안일하고 부족했던 저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셔서 감사합니다. 굿뉴스 클럽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상담하시는 집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어린 자녀들에게 뿌려짐도 감사합니다. 그 뿌려진 씨앗을 하나님께서 큰 아름드리나무처럼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지 선교는 생활하며, 시간을 쪼개어 해야하므로 혼자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한사람이 한가지씩 담당해 가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번져 가는 것을 봅니다. 나에게 아주 작은 것밖에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바치어질 때 주님은 오병이여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알비소에서 또 가까운 소수민족 이웃들로도...

“...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계3:8b)

글 민미순, 최재희, 김혜리, 양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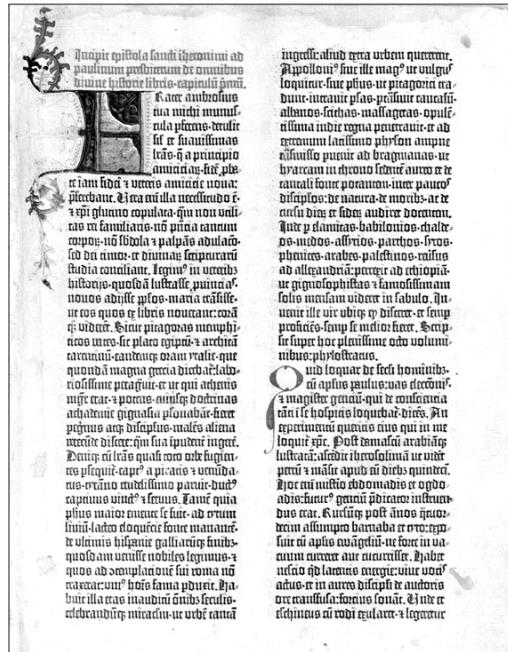
이 시대 문명과 IT 선교



우리는 흔히 말라기가 쓰인 BC 400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고 어떤 선지자 또한 보내지 않으셨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 시대가 결코 단지 암흑의 시대라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로마가 이스라엘 지방을 포함한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지방까지의 대제국을 이루어 나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이 일대를 지배하였으며 헬라어(그리스어)가 로마제국의 공용어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준비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로마제국의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에 의해 건설된 도로와 공용어(헬라어)로 쓰인 신약성경을 통하여 복음은 사정없이 로마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받은 후 약 10세기 이상을 기독교는 유럽의 문화로 발전해 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럽을 넘어서지 못했을 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지독한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루터와 칼뱅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이끌어내십니다. 1517년 루터의 95개 조 반박문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만 붙여졌지만 두 주 만에 독일 전역에, 두 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반박문이 넓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1440년경 구텐베르크에 의해 발명된 활판 인쇄술 때문입니다. 이 인쇄술로 말미암아 유럽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이 성공하였고 성경의 급속한 보급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로마 시대 375개 5만 마일의 도로와 헬라어라는 공용언어를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



비하셨으며 인쇄술을 미리 예비하셔서 타락한 가톨릭으로부터 개혁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셨으며 유럽 안에 갇혀 있던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로마 시대의 도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인터넷 도로가 지구 구석구석 연결된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으며 15세기 인쇄술의 수억 배에 달하는 문명의 IT 기기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문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저 편리하게만 살라고 하신 것일까요? 단연코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IT 세상을 당신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사용하시길 원하시며 또한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의 작은 소년과도 얘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내 서랍 속에 방치된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한 번도 ‘예수’를 들어 본 적이 없는 문맹의 영혼에게 예수 영화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가는 ‘단기선교’가 항공 교통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것ですよ. 그 전에는 아무리 교회에서 선교의 열정이 뜨거웠어도 특별하게 장기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 외에는 선교지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항공교통으로 우리의 선교정책이 바뀐 것처럼 인터넷이 지구의 구석구석의 사람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이 시대는 그 상황에 맞춰 선교의 전략이 변해야 합니다. 아젠 인터넷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FACEBOOK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친분을 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에서는 선교사비자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 비자로는 입국이 불허되지만, IT 교수나 비즈니스맨에게는 쉽게 입국을 허락합니다.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의 많은 미개발 이슬람 국가들이 그들의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SW(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이때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기술 일부를 전해주고 소망을 주며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간다면 복음전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에는 예전처럼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전도하거나 교회를 개척하지 못합니다. 이제 남아 있는 선교지는 대부분 아랍 중동과 그 주변국들입니다. 그러한 지역의 침투는 IT 등 과학 기술의 전문가들이 선교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IT와 기술 문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 이러한 지역으로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최근 시리아와 몇몇 국가들의 내전으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이 난민 문제로 머리 아파하지만 잠자던 유럽교회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요르단에는 마음이 가난해진 이라크와 시리아 난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특히 어려운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절대적인 이슬람 교육만 학교에서 받아 오던 이들이 지금은 완전히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쉽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는 코딩스쿨(CODING SCHOOL)을 통해 이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IT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선교방법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참여이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 내 작은 참여가, 내 작은 실행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역에 동역하는 선교사가 되는 길입니다. 이 시대 또한 지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클 박시완 선교사 (FMNC 과학기술 선교회)



종교 개혁의 새벽, 존 위클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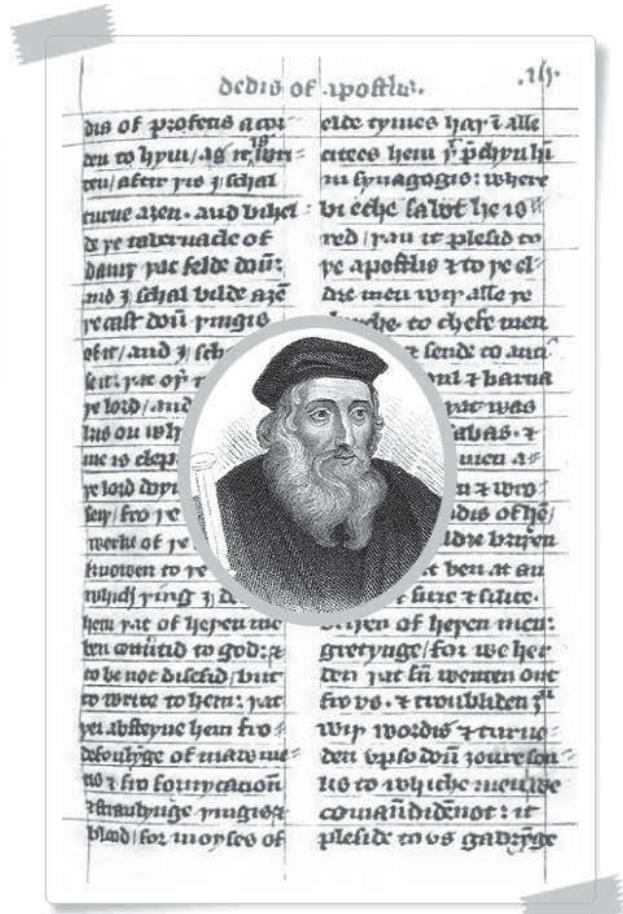
(JOHN WYCLIFFE 1324-1384)

옥스퍼드 시절

존 위클리프는 1324년 영국의 북요크셔 주에서 태어났다. 옥스퍼드 베일리얼 단과대학에서 신학, 철학, 법률을 공부한 그는 1360년 같은 대학의 학장이 되어 후진 양성에 힘쓴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옥스퍼드의 꽃이요 철학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학위 시험 훈련하는 데도 단연 최고”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로 부터 높은 존경을 받던 중 1366년 당시 통치자로 활약하던 곤트의 존 (JOHN OF GAUNT)의 후원으로 영국 왕실의 전속 신부가 된다.

교황에 대한 항거

위클리프의 정치적 입문은 전부터 교황의 무조건적인 권위에 대해 반감을 품던 그에게 교황제도의 실정을 직접 파악할 좋은 기회가 된다.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통치’ 내지는 ‘지배’에 관해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르침이 로마 교회를 몹시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는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므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직자들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지배는 은혜에 근거한 것이므로 죄 있는 교황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왕에게 교회를 개혁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일반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에게 많은 호소력을 갖고 있던 이 이론을 활용해서 로마 교회의 권력 남용을 공격하고 교황의 권위를 제한하려 했다. 그 결과 로마 교회는 위클리프를 정죄했고, 1377년 성 바울 성당에서 열리는 주교 회의에 나와 이 고발에 대해 답변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그러나 일단의 폭도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그 회의는 유기되고 만다.



종교 개혁의 불을 댕김

그때까지 위클리프는 ‘은혜의 상태’ 안에서의 통치권만 부인했지 교황의 통치권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다가 로마 교회의 중심 교리라 할 수 있는 화체설을 공격하기 시작한 1378년, 마침내 교황 제도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그는 미사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임재일 뿐 실제 몸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떡과 포도주도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신자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구태어 신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의 성례 전 교리는 그의 교회론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로 구성된다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교황이 반드시 교회의 머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로마 교회의 가르침과 구분된)의 절대적 권위에 근거해서 이런 견해를 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권리가 있으며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체에 관한 그의 개념들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옥스퍼드 내에 큰 소란을 일으켰다. 위클리프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1381년 자신의 고백문을 쓰며 그 속에서 자기 개념들에 대해 변호했지만 그의 지지자 중 많은 사람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옥스퍼드를 떠나게 된다. 그의 많은 적이 그를 화형에 처하려 했지만 곤트의 존(JOHN OF GAUNT)의 보호로 교황에 대항하여 왕권을 지지해 준 대가로 러터워드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된다.

‘최초의 영어 성경’과 ‘롤라드파’

러터워드에 거할 당시 위클리프는 심한 병에 걸려 있었으나 이전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첫 번째 열매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일이었다. 당시는 제롬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VULGATE) 성경이 가톨릭 교회의 공인 성경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알

지 못한 채 목회자들이 전해 주는 것만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 “교회의 법률은 오직 성경뿐”이라고 믿었던 위클리프는 일반 사람 누구나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라틴어 성경을 영어(잉글랜드 중부 지방의 사투리)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완성된 ‘위클리프 성경’은 그의 사후 개정되어 당시 널리 사용되던 공용어로 다시 쓰였다. 두 번째 열매로 위클리프는 자신을 따르던 추종자들을 모아 ‘롤라드파’(LOLLARDS: ‘중얼거리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이단자들을 지칭하던 단어임)를 결성했다. 1395년까지 롤라드파는 조직적인 집단으로 발전하였고, 자체적으로 목사가 있었으며 일반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롤라드파는 위클리프의 많은 사상에 찬성하였는데, 특별히 사제의 임무는 설교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위클리프는 말년에 2년간 발작을 일으켜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1384년 12월 세상을 떠났다. 위클리프 자신이 직접 개혁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상들은 계속 살아남아 불만의 응어리를 가중했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의 종교 개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그는 실로 종교 개혁의 선구자였다.

편집부 정리

출처: [HTTP://EVERGREEN17.80PORT.NET/XE/332380](http://EVERGREEN17.80PORT.NET/XE/332380)



위클리프역의 인쇄본 본문 (1382)

WYCLIFFE NEW TESTAMENT (1382)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과 신앙적인 자녀교육’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란?

포스트모더니즘은 ‘탈근대주의·탈현대주의’를 의미하며 이성과 법과 과학이 새로운 이성적 세계를 건설하고자 했던 계몽주의의 근대적 기획에 대한 반대로 객관적 진리가 없고 윤리관은 상대적이며 다양한 공동체가 실재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에서 종교는 믿음 체계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믿고, 믿기 원하는 것을 믿는 기호, 선택으로 여겨진다. 문화를 하나로 묶어 주고 한 사회의 결속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세계관은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보다 더 신빙성을 가질 수 없고 모든 이야기가 똑같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타당한 설명으로서의 진리를 거부하며 동시에 모든 절대적인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주장마저 모순됨으로 도덕 교육의 원리도 사라지게 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은 대학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학문적 자율성을 추구하므로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공립학교에서 특정한 종교 교육을 반대한다.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폐지는 과학적 진리를 추구하는 모더니즘에서 시작되었지만,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종교 교육의 요구를 통해 기독교 교육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신앙적인 자녀교육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실제로 매일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시는 부모님의 노고를 모르고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역자로서 겪게 된 자녀 교육의 모습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자녀 교육의 모습을 빚대어 한두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Youth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POSTMODERN 시대에 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웃고 우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 가르치고 정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만일 지금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저에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르쳐야 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훈가 삼히 번성하라라”

(산6:3)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이 POSTMODERN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할 말이며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말입니다. 권위가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권위가 될 수 있으며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날이 갈수록 약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과 은혜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악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성경의 권위를 아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4절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분노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집 안과 집 밖에서의 다른 모습, 사람 앞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모습에서 분노합니다. 이중성과 가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체면이란 것을 잘 모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아이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아이들은 삶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삶에서 녹아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습니다.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I REALLY RESPECT MY PARENTS”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부모님을 향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6:4)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써 성경을 쓰지 마십시오. 성경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아이들이 가슴 깊이 느끼고 연습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아이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님께서 아이들이 나아갈 바를 직접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늘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과 함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글 이요셉 목사
출처: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교육 중에서



J.P. 캠펬

(JOSEPHINE EATON PEEL CAMPBELL 1853~1920)

한국 여성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배화학당



배화학당 졸업생

-배화 학당 설립과 배화 학당 내 최초의 예배당

캠벨은 1897년 10월에 남 감리회의 첫 번째 여성 선교사로서 중국인 양녀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1898년 10월 2일, 그녀는 지금의 종로구 내자동에 여성들 대상의 학당을 열었고 ‘여성을 아름답게 기르고, 꽃 피워내는 배움의 터전’이라는 뜻으로 ‘배화 학당’으로 이름 지었다. 배화 학당의 기도실에서는 정기적인 예배가 드려졌다. 캠벨은 미국인 루이스 워커의 기부금으로 예배당을 신축하였는데, 정기 예배는 이곳에서 지속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기 예배들 중 한 모임은 종침교(琮沈橋) 근처에서 종교 교회로, 또 다른 모임은 자하교(紫霞橋) 근처에서 자교 교회로 발전하였다. 한국 여성들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던 캠벨은 1918년 65세 때 안식년을 얻어 미국으로 돌아가다가 신병을 얻게 된다. 안식년이 끝난 후, 그녀는 신병과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뱃길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 후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1920년 11월 12일, 67세의 나이로 소천하였다.

편집부 정리 / 출처: WWW.YANGHWAJIN.NET

-일생을 헌신하기로 하다

캠벨 선교사는 1897년 44세 때 한국에 들어와서 ‘배화 학당’을 세우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였다. 27세 되던 해, 남편과 사별한 캠벨은 곧 두 자녀도 병으로 잃었다. 이러한 시련을 겪으면서 그녀는 일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하고 시카고의 간호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33세 되던 해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상해와 소주에서 1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였다.

배화학당 학생들과 함께한 설립자 캠벨



배화학당과 자골 교회 설립자 캠벨 부인



배화학당 교사 중국인 여성교사 도라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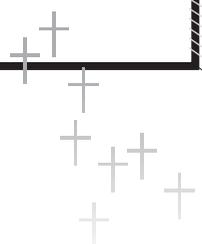
배화학당의 자골 교회로 사용된 캠벨 부인의 집, 1900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올 때 하려는가? 그때는 이미 늦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려야 한다. 교회의 자리가 비좁아 앉을 자리가 없어도 산울로 나가 강권하여 데려다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며 사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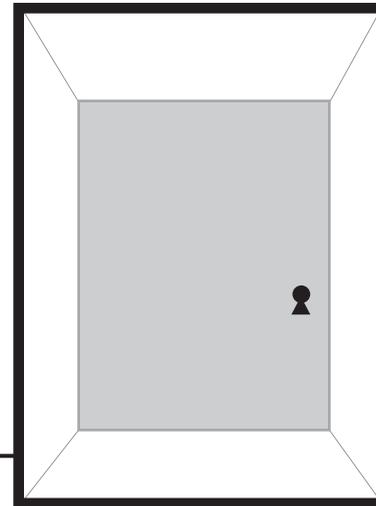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 14:23)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못하고, 영혼 구원에 생명을 바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심장이 마비된 교회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교회의 모든 행사도 성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 밖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행사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행사는 의미가 없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설레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랑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일어나 나가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대부분 성공에 오염되면 영성이 흐려지고 감정이 메말라 버린다. 심지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배려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도 사람들은 쉽게 외면한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심코 지나가는 일이 내가 가져야 할 관심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목적도 없는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는 1940년대 독일 나치에 의해 대량 학살의 위기에 놓인 유대인들을 구해 낸 독일인 오스카 쉰들러의 삶을 그린 영화이다. 독일군에 잔혹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연민과 죄책감에 시달린 쉰들러는 마침내 개인재산을 털어 1,100여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행 기차로부터 구원해 낸다. 그런데도 그는 “왜, 나는 더 많은 유대인을 구해 내지 못하였는가?” 하며 자책의 눈물을 흘린다. 구원한 1,100명이 아닌 구원하지 못한 한 명 때문에 오염하는 쉰들러의 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이 쉰들러에게 감사의 뜻으로 건넨 반지에는 탈무드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 생명을 구한 지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 전도는 감동이다 - 중에서 발췌, 정리



양념장에 쓱쓱 비벼 먹는 취나물 밥

“미국으로 와서 가장 그리운 것이 친정엄마의 밥상입니다. 엄마 소리만 들어도 눈물 날 때가 참 많지요. 한두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목장순서 때 매번 메뉴로 고민하다가 문득 엄마가 가끔 해 주시던 취나물 밥이 생각났습니다. 어릴 땐 취나물 특유의 향으로 인해 먹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는데 이젠 그 취나물 밥이 몹시도 그립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삶의 참 진리임을 알게 되니 믿지 않는 친정엄마가 제일 먼저 저의 기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늘 손해 보고 사셨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할 줄 모르는 우리 엄마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엄마에게 복음을 몇 번 전했지만, 매번 거절하는 우리 엄마, 그러나 전화할 때마다 교회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시고 열심히 다니라고 하십니다. 아마 타국에서 외롭게 지낼 딸을 생각하면 측은하셔서 많은 사람과 교제하며 즐겁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크신 듯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이 취나물 밥이 저에게는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처럼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믿지 않는 엄마를 생각하면 배에서는 너무 씹니다. 엄마의 영혼구원이 때론 끝이 보이지 않아 낙담할 때도 있지만, 곧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잠시 소홀했던 엄마의 영혼구원 기도를 오늘 이 레시피를 쓰면서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 취나물 밥 만드는 법

Ingredients 쌀 한 컵당 건 취나물 15g (취향에 따라 조절 가능), 들기름 또는 참기름 (쌀 한 컵에 한 숟가락 정도, 200ml가 한 컵, 밥숟가락으로 계량)

Sauce (4인 기준) 부추 50g, 참기름 또는 들기름 1큰술, 진간장 2큰술, 깨소금 조금,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 첨가 하셔도 됩니다.

1. 건나물을 물에 한두 시간 담가 두면 말랑말랑해집니다. (먹기 전날 밤에 담가 두고 주무시면 편해요)
2. 물을 충분히 붓고 20분 정도 끓여 줍니다.
3. 데친 나물을 찬물에 잠시 담가 둡니다. (건나물 특유의 향을 없애기 위해)
4. 물기를 꼭 짰 다음 2~3센티 크기로 잘라줍니다.
5. 자른 취나물에 국간장과 들기름(참기름도 가능)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6. 양념 된 취나물과 쌀을 섞어서 밥을 하면 됩니다. 물 양은 평상시 밥하는 양으로 하세요.
7. 밥이 될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두세요. (위의 양념장 재료 참고)
8. 밥이 다 되면 뚜껑을 열고 참기름 또는 들기름을 넣어서 비벼줍니다.
9. 기호에 따라 김자반이나 김가루를 올려서 드시면 더 고소해요. 맛있게 드세요.^^

인터넷 정수기



최근 슈퍼볼(Super Bowl) 경기가 교회에서 멀지 않은 산타클라라 리바이스(Levi's) 구장에서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미식축구(American Football) 경기와 하프타임 쇼도 있었지만, 그 뒤로는 인신매매, 마약, 환각파티, 음주운전 등등 수없이 많은 죄악이 이뤄지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음지에서 일어나는 온갖 나쁜 일들에 사람들은 점차 무덤덤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어여쁜 어린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것에 무차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면 마음이 썩 편안하지 않으실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온갖 오물이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너무 놀라고 불쾌해서 당장 고치시겠지요. 밤에 주무실 때 현관문을 열어놓고 주무십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들어와도 모르게 현관문을 열어놓고 맘 편히 주무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저희 자녀와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에서 온갖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에서는 마약구매, 마약제조, 인신매매, 폭탄제조, 성인야동, cyber bullying 등등 아주 많은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미성년자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깊은 상처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극단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성인이 우연히 접해

도 매우 충격적인 사이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유해 사이트들을 아이들이 의도치 않아도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이런 해로운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지요. 그 방법에 대해 간단하지만 아주 유용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실리콘 벨리에 있는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교인이 엔지니어 출신이라 충분히 할 수 있으시겠지만 만일 아직도 자녀들을 무방비로 노출하고 계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렇게 길게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린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World Wide Web (WWW) 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웹사이트들입니다. 예를 들어 www.daum.net 이나 www.naver.com 을 입력하시면 그 웹사이트가 화면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주소를 넣으셨을 때 그 주소를 받아서 또 다른 주소인 IP (Internet Protocol) 주소를 찾아주는 Domain Name System 서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www.daum.net 주소를 넣으면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서비스 회사에서 그 주소를 받아서 Domain Name System 서버에서 IP 주소를 찾아서 연결해 줍니다. www.daum.net 의 IP 주소 중의 하나가 110.45.215.23인데요, 이 번호를 넣으시면 Domain Name System (DNS)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화번호부에서 어떤 사람이나 업체의 이름을 찾으면 전화번호가 나오는 것 같은 원리와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를 외우기가 힘든 것처럼 모든 IP 주소를 외우기도 힘들어서 DNS 서버가 필요한 것입니다. DNS 서버는 주소를 입력한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웹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웹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웹사이트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DNS 서버에 필터를 달아주는 방법입니다. 많은 유해사이트는 일일이 다 개인이 막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중에서 Open DNS라는 회사에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웹사이트 링크는 <https://store.opendns.com/setup/#/familyshield> 입니다. Open DNS 웹사이트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인터넷 공유기(router)를 설정하실 수 있으시면 집에서 연결되는 인터넷을 아이들을 위해서 몸에 좋은 약수만 나오는 약수터처럼 만들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해물로 넘치는 인터넷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 김홍배



약속을

끝까지

일으라

여리고 성은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 4일째는 성벽에서 돌 몇 개라도 흔들리며 빠져나오거나, 약진이라도 나고, 5일째는 성벽에 금도 가기 시작하는 식으로 성벽 상태에 점점 이상 징후가 보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여리고 성은 7일째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마지막 7일째 성을 일곱 바퀴 도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다.

누구나 처음 얼마 동안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려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이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는가? 열세 바퀴 중 단 한 바퀴만 덜 돌았어도 여리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곱'이라는 숫자다. 일곱 제사장, 일곱 나팔, 일곱째 날, 일곱 바퀴. 성경에서 일곱이란 숫자는 거룩한 숫자다. 곧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창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작전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한 걸음씩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야 한다. 우리는 설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박자에 같이 맞춰 춤을 추고, 함께 가면 되는 것이다.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한홍 저) 중에서



우슬초

우슬초는 꽃과 잎과 줄기, 그 어디에도 눈에 띄는 아름다움이 없는 불품없는 식물이다. 서양의 많은 성경 학자들은 우슬초를 바위틈에 나는 이끼로 간주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우슬초는 다르다. 바위에서 나는 이끼는 우슬초가 아니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랍비 라쉬(Rashi, 1040-1105)이다. 그는 애굽에 장자 재앙이 있던 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찍어 문 인방과 설주에 발랐다는 말씀을 근거로 들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출12:22)

이 말씀에 기초한다면, 우슬초는 반드시 줄기와 잎이 있는 식물이다.

〈겸손함을 상징하는 우슬초〉

바위와 담장 밑 그늘같이 구석진 곳에서 자라는 우슬초는 겸손을 상징한다. 열왕기 저자가 잠언 뿐 아니라 식물학에도 통달했던 솔로몬 왕의 박식함을 표현한 구절에서 우슬초가 등장한다.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왕상4:33)

우리는 흔히 ‘대단히 많다’는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때, 하늘에 해당하는 식물이 백향목이고 땅에 해당하는 식물이 우슬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낮은 자리의 식물로 언급되는 우슬초는 겸손을 상징한다.

〈정결례에 사용되는 우슬초〉

다윗은 왜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 달라고 간구했을까?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전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었다. 이때 다윗 왕의 고백 중에 우슬초가 언급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51:7)

어떻게 우슬초가 다윗을 정결케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면 이해할 수 있다. 다윗의 때에는 부정함을 입은 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기다려야 했는데,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물을 찍어서 뿌리면 즉시 정결하게 될 수 있었다.

〈정결케 하는 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세 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성전 제사에 참여해야 했다. 그런데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부정한 것, 특히 시체에 닿는 일이 종종 있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평토장 무덤 (unmarked grave), 즉 땅을 얇게 파서 묻고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 무덤으로 장사를 지냈다. 이때 땅을 너무 얇게 파서 뼈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객들이 이런 시체에 닿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졌는데 (민 19:11), 일주일의 지나면 명절이 끝나버렸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특별 구제책이 필요했고, ‘정결케 하는 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가 죽고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민19:2-6)

말씀에서 보듯이 감람산에 단을 쌓고 붉은 암소를 태우는데, 이때 홍색 실로 묶은 백향목과 우슬초를 함께 태워서 재를 얻는다. 그 재를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에 타서 만든 물이 ‘정결케 하는 물’이다. 우슬초를 이 물에 찍어서 시체와의 접촉으로 부정해진 사람에게 뿌리면 그 즉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우슬초는 정결례에서 빠질 수 없는 귀한 식물이기도 하다.

편집부 정리, 출처: 열린다 성경(식물 이야기)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아시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 사랑하시네
 내가 나를 버리고 싶을 때
 나를 하나님이 잡으시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참아 주시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 회복하시네
 내가 나를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품어 주시네

송명희 시인



크리스천 명언

.....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첫 세 시간을 기도하는데
 써야 할 것이다.”

- 마틴 루터 -

*“I have so much to do
 that I shall have to spend
 the first three hours in prayer.”*

- Martin Luth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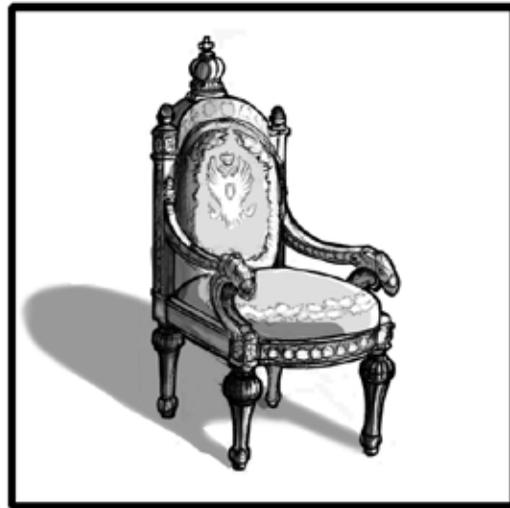




글/그림 정용익

Throne of the Heart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16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who's on the throne of your heart?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is not of the Father,
but is of the world.
1 John 2:16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
아직도 스스로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Do you still want to be a
king of useless earthly desires?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 man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sup with him,
and he with me.
Revelation 3:20

미세먼지 해독제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로,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 때 날아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된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맨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아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체내로 곧바로 들어온다는 데 있다. 이때 몸속으로 들어온 먼지는 기도 끝, 허파파리까지 깊게 들어와 몸에 쌓여 건강을 악화시킨다.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들어가면 이를 배출하기 위해 섬모운동이 일어난다. 섬모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점액 성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는 사람은 대부분 건조한 점막으로 인해 섬모운동 기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점액 성분이 풍부한 해조류를 섭취해 우리 호흡기 속으로 들어온 미세먼지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음식을 살펴본다.

다시마 · 미역 등 해조류, 바다에서 나는 ‘해독제’

다시마와 미역, 파래, 툯, 매생이 등 해조류는 바다에서 나는 해독제로 불린다. 해조류는 체내에 쌓인 나쁜 물질을 흡착시켜 배출해 유해 중금속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 기관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섬모운동을 활발하게 해 노폐물의 배출을 돕는다. 요오드를 비롯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각종 비타민도 풍부해 환절기 질환 예방에도 좋다. 특히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풍부해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 몸속에 쌓일 수 있는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K와 알긴산 손실을 적게 하려면 물에 너무 오래 담그거나 데치지 않도록 한다. 해조류는 철분 성분의 좋은 공급원으로 평소 철 결핍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미역의 경우 100g에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정도의 철분이 함유돼 있다. 헤모글로빈 합성에 필요한 엽산도 풍부하다. 해조류에는 요오드를 비롯한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알긴산, 칼슘, 라미닌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알긴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다.

미나리, ‘독소 배출의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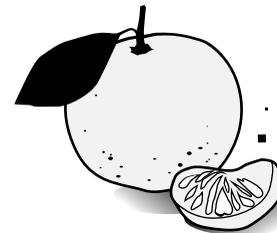
대표적인 알칼리성 채소인 **미나리**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산성화된 우리 몸을 중화시킨다. 미나리는 미세먼지를 잡는데 탁월하다. 미나리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알칼리성 채소로 혈액을 맑게 해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독소 배출 효능이다. 매연과 먼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효능이 탁월하다. 중금속 배출 효과를 높이려면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 장운동을 증가시켜야 한다.

굴, 미세먼지 속 ‘세균’ 잡는다

비타민C가 풍부한 **굴**은 면역력을 강화해 주며 감기 예방에 좋다. 기침을 식이는 데도 좋고, 미세먼지 속 세균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막아준다. 굴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므로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껍질째 섭취가 힘든 과일이라면 하얀 속껍질이라도 함께 섭취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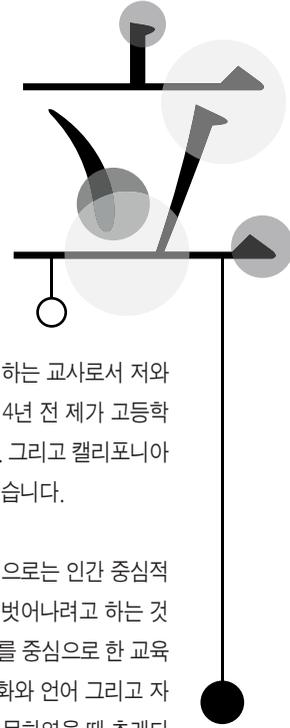
배, ‘루테올린’ 염증 완화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은 가래나 기침을 줄여 준다. 감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미세먼지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 속 오염물질로 염증이 생긴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배 껍질에 루테올린이 더 많으므로, 배를 깨끗이 씻어 껍질과 함께 넣어 즙을 내서 먹으면 좋다.



출처: <http://realfoods.heraldcorp.com>

가정 안에서 성경적 자아 확립의 중요성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 가는 지금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는 교사로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아이들 앞에 섰을 때 4년 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와 다른 점이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며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학생들 앞에서 섰을 때 더 많이 바뀐 지금의 아이들을 보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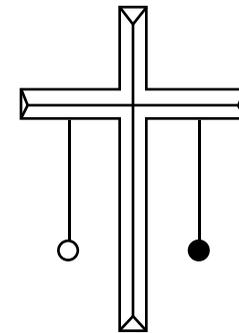
서로가 가진 다른 가치관과 문화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이 시대의 문화가 겉으로는 인간 중심적이고 따뜻해 보일 수도 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 보았을 때 점점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대학원 과정에 있을 때 학생의 모국어와 문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끊임없이 왜 학생들이 본래 자신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자아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또 학생의 문화와 언어 및 자아가 존중되지 못하였을 때 초래되는 교실 안에서의 불평등, 불균등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의 문화적 배경은 단순히 그 학생의 인종이나 성별, 언어,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부모님의 교육 정도만이 아닌 그 아이의 삶의 경험이라든지 그 아이가 처한 상황과 학생의 성적인 성향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학생 개개인의 배경이 중요시되는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 당연하지만, 그 문화가 이제 성적인 취향이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까지 포함된다면 그것은 저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의 사범교육의 현실이고 추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포용은 이제 학교 전체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이 다른 많은 학생 앞에서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 주위의 친구들이 그 학생을 보고 용감하다고 칭찬하고 축하해주며 자랑스러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금하고 선생님이 그것을 뒤에서 돕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인간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안의 불화를 겪으며 자신의 존재감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여학생은 자신이 여자아이로서 너무나 약한 존재로 부각되고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자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무시되어 온 현실에 회의감을 느낀 그 학생은 결국 자신은 앞으로 남자로 살아가겠다고 발표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남자로 대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런 학생의 바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 학생이 원하는 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의 역할이 자아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이 시대의 문화관이 충돌할 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무조건 아니라고 다그치거나 틀렸다고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입장을 같이 이해하되 절대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온화하지만 확고하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일독은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함으로써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기보다 성경적 가치관을 바르게 확립하고 진리를 깨닫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글 이은미 사모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 면면에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축복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어른 예배에 참여하게 됐고, 초등학교 6년 동안 막연히 배웠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기쁨에 젖어 중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매일 방과 후 저의 발길은 교회로 향했고, 성경 읽기와 말씀 새김질, 기도를 마치고 찬양을 흥얼거리며 집에 오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겨울 방학 때 얼음장 같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어머니 손을 붙잡고 호호 불며 새벽기도에 갔던 골목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름 방학에는 새벽기도 후 교회 형들과 배드민턴을 치며 하루를 시작했던 일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더 알고 싶어서 읽었던 [대요리 문답 강해], [신학 개론] 책들... 이웃사촌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집사님들... 이런 것들이 제가 소중히 간직하는 청소년기의 훈훈한 기억들입니다.

돌연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분쟁 속에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악마 같은 표정으로 험담하셨던 집사님의 얼굴, 그 목소리... 그리고 몇 분의 목사님을 거치면서 사분오열된 교회... 이제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으시는 어머니와 집사님들... 이런 혼돈 속에 교회와 제 신앙은 단계적으로 퇴락했습니다. 급기야 고등학교 시절의

저의 발걸음은 어느새 당구장이나 비행이 있는 장소로 향했고, 대학교 시절은 더욱 염세적이 되어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나 [만들어진 신] 부류의 책들, 그리고 몇 권의 인문 서적으로 무장해 기독교인들과 어떤 논쟁에도 지지 않을 강경하고 배타적인 벽으로 무장했습니다.

사회인이 되면서, '사람은 자신이 악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생각과 '나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겠지만, 개털 모자를 쓰고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채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내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없는 삶,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 '나는 열심히 살면 중산층 정도는 살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 이 '교만'으로 일관했습니다.

4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태어나서 제일 큰 절망을 맛봤습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많은 투자를 했었고, 여러 측면으로 저와 가족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빨리 수입을 만들어야 했기에 입사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아무 회사에나 입사지원을 했고, 당연히 들어가리라 생각했던 작은 회사에서마저 불합격 통지를 받고서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 자신감의 근원을 철저히 해체하셨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자신만만했던 근거는 저의 직장인으로서의 능력과 건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 높은 스타트업 업무를 통해 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한의사 선생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연이은 입사 실패로 저의 심신은 총체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하기 힘든 큰 변화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울 즈음에 사모하던 찬양이 생겼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 저의 상황은 (전쟁은) 더 이상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완강했던 저에 대한 자신감이 모두 꺾여 깊은 상실에 빠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리 만큼, 딱 그만큼의 자기 우상(교만)에 빠져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은

평온해지고 담담히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권리라고 생각했던 저의 수입,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 건강과 가족,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는다'는 제 명제가 이제 제게 적용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내가 악할 때 위로가 돼주시는 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셔서...

“또 여호와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삼상 17:47)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러러 가면서 했던 고백이지요. 이제 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라는 '칼과 창'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무기로 싸울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이제 제가 소망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순수했던 중학교 시절에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이 첫사랑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글 최상훈 B

이제는 제가 바라는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아헨이라는 대학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학업과 직장 생활을 그곳에서 하셨기 때문에 독일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8살 때 한국으로 왔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문화 차이로 어렸을 때는 고생을 했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달라 적응하기 바빴고 피부 알러지로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주일에 가끔 성당에 갔었고 주일 학교는 한국에 온 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교의 무서운 선생님과 달리 주일 학교 선생님이 좋았고 아이들과 같이 찬송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어린아이치고는 고민이 많아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주일 학교를 통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어쩌면 습관적으로 다닌 것 같기도 합니다. 밥 먹기 전에도 습관적으로 기도는 했었지만, 저의 생활은 세상의 친구들과 별반 다른 생각없이 성공, 돈, 명예... 등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똑같이 좇아가는 정처없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하고 처세술에 관한 책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2009년, 스탠포드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팔로알토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동안 습관적으로 신앙 생활했던 것에서 벗어나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 '신앙은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진짜로 계셨던 것인가?'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생활에 관심이 있으신 것인가?'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다 잘 살고, 또한 그런 고민을 한다면도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곧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어느 순간에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 이전의 삶도 무엇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중요

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지만,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존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거짓일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손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 기쁜 순간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저와 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이제는 죄와의 관계가 주종 관계, 즉 죄의 종노릇하며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관계가 더는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싸워야 할 대상으로 맞서는 대적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한편이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같이 죄에 대항하게 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려 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식사하든 항상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번은 직장 동료인 인도 친구와 식사를 하는데 제가 식사 전에 기도하니까 그 친구가 감동하면서 자기도 이제부터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전에는 식후에 감사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식전 기도도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뵘사... 그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 친구가 교회에 관심을 좀 더 갖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가끔 제가 사랑의 음식 배달을 할 때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덕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과 똑같이 기부도 하고 자선 활동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똑같이 만드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값없이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떠한 자격도 따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제 가족조차 챙기지 못하는 아빠이자 남편이고 아들입니다.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 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속마음을 헤아리며 마음을 잘 이해해 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가족과 같이 나누고 싶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글 김일구

부르심 Calling



Since I was a little kid, I have always known that some greater power exists, just couldn't decide who that was. I have also felt that greater power watching over me and coming to my rescue when my life was in danger and despair. It wasn't until my father was diagnosed with small cell lung cancer with a little chance of successful treatments and my first unborn child on his way that I started to search for Jesus. I never had the pleasure of meeting my grandparents (that so many take for granted). Therefore, having my child meet his grandparents was something that I desperately desired for him. I attended a couple of local churches with my wife and our unborn child, but did not feel at home. Time ran out for my father and I have lost all my faith.

With new view on religion, I felt like I had to control my life and my own destiny. Over the years, I tried to control my life. However, everything that I thought I had under control started to break down. I lost my job, which led to losing our house. As I fought every fight and struggles, anger started to grow ever stronger. While struggling through this, my wife, Emma, met someone who attends Emmanuel Church. She suggested sending our son to church so that he can be less lonely and make new friends. This individual from Emmanuel Church even offered to pick up and drop off our son while we were at work. Feeling thankful, faith of Jesus started to grow in Emma. First lady Son somehow decided to take Emma in as her student which led her to attend Sunday service with our son.

저는 어릴 때부터 신이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신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그 신이 나를 보호하고 또한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에서 구원해준다는 것도 느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의 암 선고와 내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후입니다. 저는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가 꼭 할아버지를 만나기를 하는 소원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과 함께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전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나의 인생의 미래와 모든 계획은 내가 control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잃게 되었고 집 또한 잃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저의 아내 Emma가 입마누엘 교회를 다니는 분을 만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아들이 외롭지 않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도록 교회를 보내는 것이 어떠냐며 권유했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일을 하는 동안 저희 아들을 교회에 데려다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손 목사님의 사모님인 손경아 사모님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저의 아내 Emma는 조금씩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Through Emma and our son, I started to hear Jesus speak to me in many different ways and calling for me. Perhaps because of God's calling or the guilt of sending Emma and son to church alone, I started to attend Pastor Son's service with simple thoughts of getting free lunch afterwards. In the beginning, I could not understand a word of Pastor Son's preaching even with translator. So during service, I picked up the bible and started to read it like any other story book. It wasn't until couple of months later that I started to hear Pastor Son's words and it all made sense to me.

For months, Emma wanted me to be baptized and join the Christian family. Feeling unprepared at first, I brushed off Jesus' calling and Emma's request. But during my drive to work one day, I heard the song "Lord, I'm ready now" by Plumb. In the lyrics, there was a part that says **"I ran away from you, and did what I wanted to. Lord I'm ready now. I was so caught up in who I'm not; can you please forgive me? Lord I'm ready now."** After hearing these words, tears started to roll down from my eyes. At that point, I realized the calling from Jesus couldn't be any louder and decided to be baptized.

The thought of baptism scared me at first. I thought I would be scared being the only one getting baptized that day or even bawl like my wife did on her special day. But it turned out to be the happiest day of my life -- it felt as if it was a celebration of my birthday. Actually, it was million times happier than any birthdays I've ever had. The Lord lifted me up that day. Ever since, I feel the Lord in me, walking with me on my rough sea of anger and anxiety, claiming it, and telling me that everything will be fine now that He has me. Ever faithful,

Jeff Chiang

저의 아내 Emma와 아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내와 아들만 혼자 보내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인지는 몰랐지만, 공짜로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역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경책을 펴서 이야기책처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몇 달 동안 읽으면서 점점 목사님의 설교가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저의 내내는 제가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으로써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처음에는 저의 아내의 권유도, 예수님의 부르심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하러 가는 도중에 Plumb이 부르는 "Lord, I'm ready now"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준비 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주님, 이제 저는 준비 됐습니다."

이 찬양을 듣자마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를 간절히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세례를 받는다는 생각과 아내처럼 평평 울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세례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례받은 날은 제가 살아왔던 날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날입니다.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어떤 생일보다도 몇 천만 배 더 기쁘고 행복했던 날입니다. 그 날 주님은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날부터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고난과 걱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제 삶의 주인 되어서 저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음 안에서,

JEFF CHIANG/ 번역 안혜원

인도 단기선교 보고



완 다날루, 빠르메슈아 압고 아시시! 인도 델레구 언어와 힌디어로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자각없는 저를 귀한 사역과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이지 않을 것만 같던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상치 못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로 영접할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으며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기적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복음을 난생처음 듣고 파송 팀의 중보 기도를 받을 때 그들이 흘린 뜨거운 눈물은 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작년 1월, 인도 선교 파송 예배와 선교 보고를 들으며 2015년 인도 선교에 마음을 품게 되었고 준비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억 3000만 개의 우상이 존재한다는 인도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날을 기대하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저희가 느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 44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교회와 목회자가 없으므로 평안의 집 (가정교회) 지킴이를 세우고 저희가 복귀한 뒤에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일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 선교팀 구성원 중에는 Youth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인간적인 생각에 걱정도 하였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은 가는 곳마다 인도 아이들을 모이게 하였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 둘째 날 방문한 평안의 집 사람의 딸이 은혜 학생과 나이가 비슷했는데 그날이 바로 생일이었습니다. 방문한 날 생일자 가정이 총 3집이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 가정들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시는 듯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없을 것 같던 마을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찬양과 율동을 하며 마치 VBS를 즉석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니 축복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 방문한 Khachi라는 마을에서는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힌두어를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예비하신듯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방문

을 보고 호기심에 참석한 청년이 힌두어와 지역 언어 2개 이상을 구사할 수 있다며 통역을 자원했습니다. Mehul이라는 그 청년은 복음을 처음 접하였음에도 마치 지속해서 사역을 해온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통역했으며 사역을 마친 후 자신의 집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은혜로 자기 집이 복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Kungrave라는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Anand Ambati라는 사역자가 동행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사역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Anand라는 통역자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며칠 앞두고 의도치 않은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기도를 받고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을 통해 기도로 치유 기적을 체험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Kungrave라는 지역은 유독 아픈 사람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과 함께 팀원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많은 병자가 낫는 것을 경험했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매가 기도 후에 차분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한 중년의 여인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해서 목사님은 “예수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눈이 보이게 해 주실 것을 믿느냐?” 라고 물었고 그녀는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한 후 그녀의 농동자에 끼어있던 하얀 막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녀는 보인다고 대답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모인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음에도 끝까지 영접하지 않던 화난 듯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하니 허리에 손을 얹었고 기도 후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던 허리가 나아

다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할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 여성의 아들이 청년이 평안의 사람이었는데 저희에게 “어머니가 항상 화를 많이 내었는데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졌고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상황과 형편에 맞게 기도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한 치유의 역사 등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나가기 전 매일 아침 팀원들은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 말씀을 붙잡고 사역에 임했습니다.

Andhra Pradesh에서 마지막 선교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날 아침 말씀은 “종말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신 빌립보서 4:8, 9절이었습니다. 선교를 위해 중보 기도로, 사랑의 손길로 마음을 나누어 주신 임마누엘 지체분들과 손원배 목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기쁘고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계시어서 행복했습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저희 가족은 분주함으로 멈췄던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선교지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게 되었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글 고석진



살아 있는 말씀으로 살아 있는 삶을



저는 정선희 집사님이 리더로 이끌어 주시는 성경 읽기 그룹에 함께한 지 2년째가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한 이유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며 살아왔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읽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처음 마음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성경을 읽고 싶었는데,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디. 약속이 생겨 분주한 아침이면 읽는 걸 잊어버리고 하루를 보내는 게 얼마나 눈 깜짝인지, 또 주말이 되면 더욱 잊어버리고 며칠씩 밀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읽고 난 후에 올리는 한 구절이 저에게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없이 읽고 난 후, 올릴 말씀을 찾으려고 몇 번을 다시 읽다가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땐 인터넷을 뒤져 그 말씀을 찾아서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찾아보고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했으니까요. 남들과 다른 부분을 올리는 것도 신경이 쓰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뭘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느껴지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나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며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하고 싶지 않은 걸 내가 이끌어 가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손 목사님께서 대대적으로 선포하시고, 온 교인이 해야 할 의무가 되었으니, 제가 힘들이지 않고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어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을 비롯해 모두 기도로 준비하셨을 것이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올 한 해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온 교회의 기도 속에 저희 가정은 2016년 첫날부터 순

조롭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9시가 조금 넘으면 다들 방으로 모여 자연스럽게 오늘의 읽을 곳을 찾아 성경을 읽는데, 하루는 그런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굶고, 점심 때도 못읽으면 굶고, 저녁때도 마찬가지로 꼭 말씀을 읽은 사람만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대화를 하던 중, 저희는 저 빼고는 다 남자들이라 한 끼 굶는 것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말씀을 미리 읽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편하게 모든 식사를 하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두가 불평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무엇보다 말씀은 참으로 저를 많이 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 눈을 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면서도 겉으로 관찮은 척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었고 한번 사람이 싫어지면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말씀 읽기를 시작할 때쯤, 제가 정말로 제 인생 가운데 말 못하는 감정 싸움으로 제 삶이 피폐해지고 급기야 감정의 바닥을 치는 사건을 겪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만 같고,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고 변화는 아주 조금씩 조금씩 제 삶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든 사람이었고, 만나고 난 뒤의 허전함으로 더욱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덧 주변을 돌아보며 먼저 연락을 하고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절의 두려움도, 허전함의 두려움도, 이젠 만남의 기쁨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만남이 있었는데, 위로의 만남으로도, 친구의 만남으로도, 허락하셨습니다. 항상 만남을 갖다 보면 확실한 것은, 내가 누구 위해 손을 먼저 내미는 것 같지만, 내가 더 위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을 보내실 때마다 거부감 없이 나의 모든 환경을 동원하여 기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놀라운 일들도 몇 번 있었는데, 그중엔 7년을 만나고, 7년을 두절하며, 두 번 다시 안 볼 줄 알았던 작은 시누와도, 제 마음을 녹이신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도 녹이셔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며 다시금 만나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곤 하지만, 내가 고집하며 내가 원하는 길에 하나님이 계실거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가길 원한다면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가라 하시는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성경 읽기 그룹은 아마 다른 그룹보다 좀 많은 인원인 듯합니다. 저희 그룹에는 다른 교인이지만, 같이 하고자하는 분들은 언제나 환영하니까요. 보통의 만남엔 일상의 관심사를 나누지만, 저희 그룹에선 언젠가부터 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매 주일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설교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기억조차 희미해진 성경 구절과 말씀을 등쳐 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래도 지금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시금 설교가 생각나고 뺏속까지 박히는 뚜렷한 구절들이 저를 붙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의 우리 가족은 저녁이 되면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며, 누구 하나 한 번도 읽기 싫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아파서 못 읽은 날이면 다음 날이라도 밀린 것들을 척척 알아서 읽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답니다. 저희 아이들이 4학년, 6학년인데, 아마도 평생 기억 속에 2016년, 올해를 특별하게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이 너무도 가깝게 느껴지고, 스쳐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는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임이, 감동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저는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따라 읽고 말씀을 골라 올립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조금이나마 배우고 싶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담아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또한 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며 같이 걸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글 엄자영

찬양하는 삶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일은 그저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습관처럼 생각했던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질러 부모님께 꾸중을 듣거나 동생과 심하게 싸운 날, 그리고 무서운 꿈에 잠에서 깨어 두려움에 더는 잠을 잘 수 없었던 그 밤에도...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그분 밖에는 '나'라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세상을 향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사춘기 시절에도... 대학에 갓 입학해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에 경이로워하며 억눌려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한 번에 풀어버리려는 듯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새 까맣게 잊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죄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도... 지었던 죄들을 뒤우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지만, 또다시 옛사람의 속성으로 되돌아갔다가 하나님께 끌려 돌아오기를 수차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겠노라는 다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도...

“방패와 병기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떠올라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는 찬송입니다. 불안했던 마음이나 근심, 걱정하던 일들이 순간 다 잊혀지고 '나에겐 성과 방패요 환란에서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확신과 평안을 갖도록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에 더 많은 감동과 감화를 주었던 찬양들은 당시 유행하던 수많은 가스펠 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렸을 적 외할머니, 어머니와 같이 박수 치며 부르던 오래된 찬송가들을 이따금 부를 때 더 많은 은혜와 감사가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며 교회 개척에 열심이셨던 외할머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들을 때면 마치 소설이나 동화처럼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제 삶을 통해 직접 느끼고 경험하며, 언제나 함께 계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한번 택하신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 하나님

의지가 너무 약해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수많은 유혹과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저를 그대로 둘 수 없으셨는지 그 땅에 남아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미국으로 거처를 옮기도록 하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중학교 때 찬양을 위해 처음 기타를 배우게 하시고 작은 교회의 찬양 인도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훈련시키시며 믿음의 단련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나'라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과 그 하시는 일 그리고 그 시간에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던 해에 job market이 좋지 않아서 한 달 두 달 시간만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던 저는 찬양 예배 때마다 저에게 놓인 상황과 제가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해 나눔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좋은 직장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좋은 직장을 허락받고 마지막 예배 때 작별의 인사를 드리

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교회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며칠 후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목사님 댁에 방문하였을 때 사모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두어 달 전부터 살아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신데 용의 형제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고 들으시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셨네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작던 크던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보잘것 없는 저이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삶들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 앞에 남아 있는 삶 가운데 주님께 가는 그 날 까지도 강한 성과 방패요 병기가 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글 정용익 / 사진 김범진



은혜 없이

지 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그리고 저희 가정에 베푸신 큰 은혜와 사랑을 세어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순탄하지 않았던 저는 세 살 무렵 죽을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세 아이(다은, 유찬, 지은)의 엄마가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저는 종종 이 일을 생각하고, 죽음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새로 사는 나머지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저희 가정은 친가나 외가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지만, 지금도 누가 언니를 전도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열심'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게 된 이후, 저는 참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저에게는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던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에서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리고 사내 신우회에 참석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저에게 첫 위기는 결혼이었습니다. 시간만 가면 교회에 가던 저와 주일 예배로만 만족하던 남편과 매 주일 부딪히며 다투게 되었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각자 다른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유학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보스턴으로 떠나가기 전 저는 남편과 제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예비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고, 참 좋으신 하나님은 룸메이트를 통해 저희 가정이 함께 섬기고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남편의 변화를 계획하셨고, 남편을 '교회 죽돌이'로 만드셨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진로가 모두 막힌 남편은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남편과 깊은 교제를 원하셨고, 이 시기에 남편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학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부족한 것은 좋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고, 큰 어려움 없이 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제게 두 번째 위기는 남편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도 '열심'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벽기도를 포함해, 모든 예배와 성경공부에 남편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보면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기보다는, 가정을 등한시하고 교회로만 내뺄려는(?)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혼자만 기록해지려는(?) 남편에게 핀잔과 무안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저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갔습니다. 늘 은혜와 눈물이 넘치던 금요기도회는 심신이 지친 저에게 피곤한 또 하나의 일정이 되었고, 설교와 기도시간도 제게는 그저 시간 때우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졸업 후,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이곳 산호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저희 가정을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다시 빛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막내 지은이를 통하여 1년간의 쉼을 주셨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아내의 역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한 아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내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의 첫 직장생활을 통하여 교만하던 마음을 회개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기도의 회복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기도했던 대로 좋은 이웃, 좋은 학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였고, 지난 1년 동안 기도했던 저의 직장도 허락하셨습니다. 남편의 기도를 통하여 저에게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는 저도 기도로 남편과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아내로 엄마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글 읽은아



〈13 일만에 성경을 완독하시는 김태운 목사님〉

제가 어릴때 자라난 곳은 4월, 5월이면 춘궁기가 있는 아주 가난한 시골 산골입니다. 고향은 경북 의성이고 춘산, 보통학교(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공납금도 할아버지가 짚신을 삼아 팔아서 내어 주셨습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려고 했지만 학비를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 학비를 면제해 주는 사범학교를 지원하고 시험보았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한 일 년쯤 방황하다가 일본에서 탄광 광부를 모집 한다가에 지원을 하여서 나이드, 체구도 미달 되었지만 어렵게 구주에 있는 탄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탄광소 옆에는 아다라는 철공소가 있었는데 밤에도 대낮같이 불이 밝아서, 늦은 밤에 밖으로 나와 내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하곤 했지요.

'내가 일본에 일을 하러 온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에 잡혀서 그곳에서 탈출하여 한국사람들이 있는곳 (조센쟁 촌)을 찾아가서 야간 중학교를 다녔지요. 이때 내 나이가 15세쯤 되었는데, 이때에 독학으로 세계 문학전집 등 책을 많이 읽었지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해방되어서 한국에 나와서 고향의 국민학교 모교에서 1년 정도 교편을 잡다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녔고, 1950년도 3월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해에 6.25 전쟁이 나서 1951년에 경북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32년, 미국에서 워싱턴주에 있는 야키마 교회에서 10년, 그 후 은퇴 목사로 8년, 통합 50년 목회 생활을 하고 2000년 10월 22일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신구약 통독을 합니다. 13일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생활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생활 이외의 다른 세상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경은 금보다 귀하다 하기도 하고 꿀보다 달다" 라고 쉽게 말하지만, 나에게 성경은 어떤 때는 힘이 들고 괴롭고 그렇지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는데 괴로운 일이 더 많아요. <예레미야애가>에서 사람들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읽을 때는 고통스럽고, 읽고 나면 몸살도 앓고 그렇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상식이나 지식으로 읽으면 안됩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읽을때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읽어가지 영적으로 깨달음이 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을 읽는 것이 힘이 들고 성경이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13 일 동안 신구약 통독을 완성하십니까?〉

하루에 7시간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나 8시까지 이 시간이 가장 정신이 맑고, 정신 집중이 잘 되어서 성경 읽기 가장 좋은 시간이지요. 새벽 3시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성경을 읽고, 그 다음 1시간 정도 새벽에 걷고, 8시에 아침 식사하고 신문을 잠깐 보고, 9시 30분에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새벽같이 정신 집중이 되지 않아서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2시간 30분 정도 다시 성경을 읽지요.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3시에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오후에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성경 읽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1시간 정도 TV 를 보고 8시에 취침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6시간 30분 내지 7시간 성경을 읽는데, 이제는 성경읽는 생활이 나의 일상생활이고, 습관화 되었습니다. 성경을 1시간에 20 페이지 정도를 읽습니다.

〈목사님, 지금 연세까지 살아 오시는 동안 가장 기쁘신 일은 무엇인지요?〉

설교 재능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내가 50년 동안 목회를 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동네에 나보다 4살 더 많은 고향 형이 1전을 주면서 교회를 가자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6살쯤, 내가 예수를 알고나서, 이제는 내 후손들 200여명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 선산에 증조부님, 고조부님, 부모님 산소, 내 묘자리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 비석에는 여호와와 24장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새기라 명해 놓았습니다. 나에게 신앙의 원천이 된 분은 일본인 목사님, 내촌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목사님의 책 내촌감삼 전집이 내 신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요즈음도 일년에 2-3번 정도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고, 요즈음도 매일 기도하는 것이 편안하게 성경을 읽다가 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은?〉

많지요. 그중에도 얼마 전 돌아가신 박연선 권사가 내 설교를 듣고, 좋아하시던 성경구절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지요.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아버지이신 목사님, 또 믿음을 지켜 가시는 200여 명의 축복받은 후손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하신 말씀을 일구어 내시고 실천하신 김태운 목사님, 2016년도 한 달에 두 번씩 성경 완독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취재, 사진 윤영숙

오늘도 성전의 뜰만 밟고 가시나요?



요 기는 이렇게...”
 “음... 이 부분은 저렇게 하구요, 이쯤 돼서 할렐루야를 외치면 기도가 올라오니까...”
 찬양팀이 연습할 때 하는 대화입니다. 분명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습니다.
 “이때쯤 회중이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주여’ 를 세 번 외치고...”

찬양팀의 딜레마 중 하나가, 어떻게 회중들의 찬양을 은혜롭게 만들 것인가 이지요. 그런데 그 질문의 접근이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것은 결코 찬양팀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 있습니다.

중동의 선교사님을 만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문화 가운데 살면서 철저히 신분을 숨기며 교회개혁을 해야 하는 곳. 이곳에서 세계각처에서 모인 젊은 혹은 나이가 많은 다양한 인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타 둘 그리고 예배자. 그것이 전부입니다. 순서가 있지만, 정형화된 진행은 없습니다. 성령의 흐름에 내 몸을 내어 맡기듯 예배가 이어집니다. 오랜 시간 찬양하고 기도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하심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영이 그것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피아노 하나로 찬양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의 땅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천들이 모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누구는 앞드려 기도하고 누구는 펄쩍펄쩍 뛰며 찬양하고. 마치 어릴 적 엄마를 따라갔던 동네의 작은 교회 부흥회 모습처럼 몇 시간이 언제 지나갔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중국교회 선교파송예배
 찬양인도자와 건반 한사람 그리고 싱어 한 분. 성령의 강한 터치가 임하니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찬양이 그대로 마음의 고백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히 찬양을 드립니다. 표현하는 것에 소극적이던 나도 어느새 내 손이 하늘을 향해 높이 올려져 있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립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찬양이구나! 마음에 경건함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 그런 예배를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은혜로운 설교로 잘 알려진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설교들러 교회 가는 것만이 목적이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임마누엘의 찬양사역에는 많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훌륭한 설비와 장비, 대가없이 헌신하는 찬양팀 멤버들. 이런 인적, 물적 자원과 하나님께로부터의 풍부한 영성이 함께한다면 더할나위 없는 은혜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은 결코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오히려 찬양하는 자로서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찬양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찬양팀과 성가대는 예배와 퍼포먼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앞에 서 있는 찬양 인도자의 영성이 있고 없고는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예배자 분들께서 이미 아십니다.

찬양인도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솔직히 나 자신이 인도자다운 완벽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 없지만, 그러나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이길 노력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또는 어떤 다른 생각으로도 빼앗기고 싶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다짐만으로 된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부단히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느새 임마누엘인으로 16년.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작은 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임마누엘교회

의 찬양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흥에 겨워 박수치고 일어나 찬양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같은 나를 그분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 때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찬양시간은 찬양팀이 준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팀은 예배자의 찬양을 돕는 역할을 하고 그 주체는 예배자분들이십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았음 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주보 소식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동참하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정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자가 내가 아니었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뜨거워진 마음으로 나의 예배를 세우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우리 모두가 그 살아 있는 임마누엘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글 김성수 (1부 예배 찬양팀 인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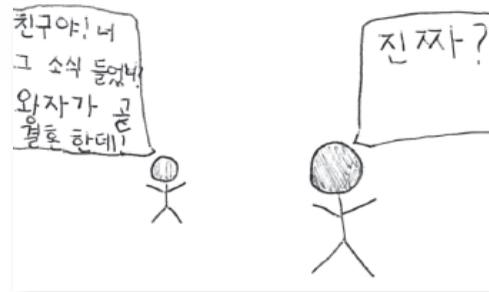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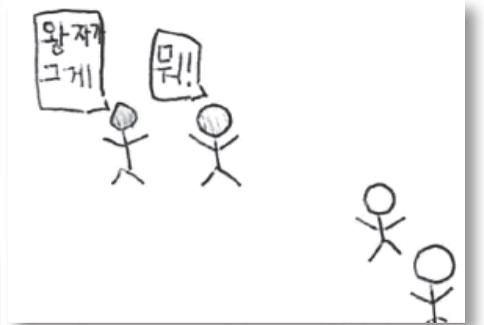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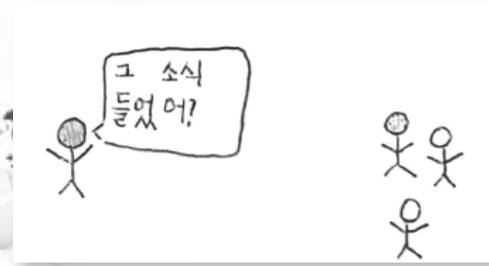
만화 그리기

속담/사자성어: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이름: 강은솔



이름: 조유빈



열방을 향해 비상하는 해외 선교부

저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선교 위원회, 해외 선교부는 2016년 현재, 아시아와 무슬림권 복음화를 위해 세 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스물네 분의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4곳의 선교 단체와 저희 교회가 입양한 3곳의 인도 미전도 종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흠어져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방위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 용사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 등으로 선교지와 연결돼 선교 동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부는 현재, 스물두 분의 자원자들이 중보 기도팀, 선교사 후원팀, 그리고 북한 선교팀으로 나누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팀(조상전 팀장)은 매월 둘째, 넷째, 다섯째 주일 정오에 선교 위원회실에서 많은 성도님이 함께 중보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의 최근 사역 현황과 기도 제목 등을 함께 나누며 선교지의 영혼 구원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섯째 주는, ISIS 테러 등으로 선교 환경에서 더욱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계시는, 이슬람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곳 선교 중보 기도회에서는 모세의 팔을 지탱하고 있던 아론과 훌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두 달간 미얀마 건축 선교로 다녀오신 김정건 집사님의 미얀마에서의 건축 사역에 관한 경험들을 듣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N 국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생사를 오가는 현지의 사역들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해외 여러 곳의 방문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문답과 질의를 통해 선교지의 동향과 사역의 깊은 이해를 나누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새해 들어, 기도 네트워크를 튼튼히 구축해 더욱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고, 교회 웹 및 미디어를 이용한 선교지와 사역 안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선교 기도편지를 발간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기도방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후원팀 (구광희 팀장)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여러 선교사님의 숙식 지원 및 선교 보고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선교사 및 선교지를 위한 후원 및 선교용품 지원 등 병참기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N 국 선교 보고를 위해 방문하신 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며, 식사, 공항 Ride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사역 보고와 방문에 불편함이 없게끔 뒤에서 여러 집사님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팀 (변정수 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담임 목사님의 당부와 함께 작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하여, 올해부터는 새롭게 사역팀으로 구성하여 출발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공회 하심으로 북한의 복음화와 통일에 이르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하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 첫째, 세째 주에 북한을 위한 기도회로 모여, 북한의 현황과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실마리가 어느 작은 기도회 모임에서 출발했듯이, 여기고 성을 무너뜨릴 기도가 이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임마누엘 장로교회 구원 방주의 기관실인 이곳 선교 위원회실에서 매주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매 주일 정오 선교 위원회실로 오세요. 찬양, 말씀, 기도가 진동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글 김광석 / 사진 해외 선교부 제공

아리조나 인디언 마을의 자연식품과 가공식품 이야기



테파리 (tepary) 콩



프리크리 페어 선인장 (prickly pear cactus)

아리조나에서 사는 인디언 (Pima 와 Tohono O'odham 족)은 1940년대까지 사막에서 자생하는 곡물들을 전통적으로 먹으며 건강하게 살았다. 그러나 현재 이 인디언 중 35세 되기 전까지 거의 50% 정도가 당뇨병을 갖고 있고 이 수치는 전체 미국인과 비교해 15 배 높은 발병률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당뇨병이 이 인디언 족속에서는 매우 드문 질병이었다. 흥미롭게도 이 인디언들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사막에서 자라는 음식들로 다이어트를 변화시킨 결과 혈당 수치는 정상화되었고 매 끼니 사이에 관찰되던 배고픔 현상이 사라졌으며 체중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학자들은 이 인디언들의 최근 당뇨병의 급격한 발생이 이전과 현재에 섭취한 음식들의 현저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인디언 족속의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과 현재 이들 후세가 먹고 있는 음식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은 당뇨병의 원인 발생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 이들 인디언과 더 나아가 현재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가진 현대인들의 건강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리조나 사막에서 자생하는 메스키투 나무(mesquite tree, 가시가 있는 콩과(科)의 관목), 콜라 (cholla) 선인장 봉우리, 프리크리 페어 선인장 (prickly pear cactus), 강낭콩 종류의 테파리 (tepary) 콩, 치아 (chia) 씨앗과 오크나무의 도토리도 이 지역에 살던 인디언들의 주식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식물들은 사막의 높은 고온과 매우 낮은 습기의 환경 내에서 자라도록 적응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테파리 콩에 많은 물을 콩



치아 (chia) 씨앗



메스키투(Mesquite Pods)

급하면 많은 나뭇 잎을 만들지만 콩 열매는 거의 맺지 못한다. 그러나 물을 주지 않을 경우 이 식물은 꽃과 씨앗을 통해 매주 콩과 유사한 수준의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는 콩을 생산한다. 이러한 식물들은 사막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분을 빼앗기지 않는 딱딱한 껍질과 그 안에 식이 섬유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스키투의 콩 껍질과 씨앗에는 갈락토마난 검 (galactomannan gum)과 같은 수용성 섬유소들이 있어 영양소들을 서서히 분비시켜 체내로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게 한다. 이렇게 체내에서 젤을 형성하는 섬유소들은 4~6시간에 걸쳐 서서히 소화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배고픔 현상을 줄이고 메스키투로 만든 음식재료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기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대부분의 밀가루, 흰쌀, 옥수수 음식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림으로 몸에 부담을 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장시간에 걸쳐 지속해서 반복되면 당뇨와 같은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메스키투 콩 껍질은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아연을 풍부히 함유하고 그 씨앗은 단백질을 40%로 함유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일반 콩의 단백질 함유량의 약 2배 정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연산 메스키투 콩 식물은 기존의 상업용 콩 작물이나 흰쌀 및 밀 재배와 달리 물을 대는 거대한 관개시설이나 인체에 해

로울 수 있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유기농 농산물들이다. 또한 치아 씨앗에 있는 섬유소들은 물과 혼합되면 젤을 형성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 콜라 선인장의 봉우리는 칼슘이 풍부하여 이 선인장 가루의 한 테이블스푼은 우유 8온스에 들어 있는 칼슘과 같은 양을 함유하고 있다. 콜라 선인장의 봉우리와 프리크리 페어의 열매와 잎도 혈당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용성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리조나 인디언들의 마을에 가공된 음식재료와 음식물들로 갖추어진 대형 식료품점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사막에서 자란 음식들이 대체되는 상당한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가공음식물과 관련된 질병들, 즉 당뇨병, 고혈압과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들을 가진 환자들이 이 아리조나 인디언 마을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공식품들에는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다. 식품 첨가물이라 함은 음식의 맛과 색 또는 향을 좋게 하는 감미료(아스파탐, 소르비톨), 착색제(식용색소) 또는 색도유지제(아질산나트륨), 표백제(아황산나트륨), 향미증진제(L-글루타민산) 및 산화방지제(부틸히드록시안니솔, 부틸히드록시톨루엔)와 오래 보관하기 위한 보존료(소르빈산)와 방부제를 포함하는 화학물들이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각종 면역 질환들(피부염증,

천식과 관절염)의 발병, 유전자 손상을 통한 암의 발생, 중추신경계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발생과 몸의 다양한 기관들의 기능 약화와 연관되어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러한 음식물을 더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natural flavor'라 불리는 향신료를 식품에 첨가하여 중독현상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이 분야에서 과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 대부분의 냄새와 맛을 재현할 수 있는데 심지어 맛있는 닭요리로 만드는 수프, 소시지와 통닭의 냄새를 농축한 향신료를 개발하여 제품의 판매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한다.



콜라 (cholla) 선인장 봉우리

이 비즈니스의 목적은 강력한 중독 현상을 이용하여 판매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다. 또한, 저염과 저칼로리 음식물의 강조로 인한 가공식품 판매의 저하를 막는 대안으로 이 비즈니스는 상당한 상업 잠재성을 이미 보여주었고 가공식품 개발에서 핵심적인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주신 아리조나 인디언들이 먹었던 사막의 여러 곡물과 같은 자연식품들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철 과일들을 보면 그 계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이 듬뿍 들어 있는 과일들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먹는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하므로 면역체계를 잘 형성하여 감기와 같은 감염 질환을 긴 겨울 동안 잘 예방하고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주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에 존재하는 식품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번 주는 아내가 사 온 음식물들의 영수증을 살펴볼 생각이다. 영수증을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 가공식품과 자연식품의 비율을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잠언 20: 5)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음식물들을 선택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말씀이다.

글 지현배 (면역학)

참고 자료:

1. To Preserve Their Health and Heritage, Arizona Indians Reclaim Ancient Foods (The New York Times)
2. "The Tumbleweed Gourmet" (University of Arizona Press)
3. "Gathering the Desert" (University of Arizona Press); Native Seeds/Search
4. Tweaking tastes and creating carvings (CBS 60 minutes)

오직 예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

우리 구주 예수님만
오로지
믿고 의지합니다.

사진 박종현

아름다운 청년, 신정환 형제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른들이 계신 에녹 평원에서 차량 봉사과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봉사, 2부 예배 찬양팀 음향 담당으로, 비전 청년부에서는 목자와 마하나님 찬양대장, 그리고 4부 찬양팀과 예배 음향으로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이 한 명 있다. 신정환 형제, 그는 1998년에 도미하여 고등부 때부터 지금까지 16년간 쪽 우리 교회에 출석 중이며 하나님을 주신 비전 때문에 또다시 학업의 길을 걷고 있는 늦깎이 학생이자 취업 준비생이기도 하다.

_ 에녹 섬김

신정환 형제와 에녹과의 만남은 4년 전, 에녹 평원 담당 김태오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되었다. 에녹 봉사는 수요 예배 차량 운전으로 시작했으나 요즘은 주일 2부 예배 때도 에녹 어르신들을 차량으로 섬기고 있다. 2부 예배 전후로 차량 운전을 하고, 다시 4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수고스럽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운전이 딱히 대단한 봉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차량 봉사가 없으면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그 자체가 은혜라며 환히 웃는다. 또한,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잦아지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귀한 지혜들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들을 기회가 종종 생기는 것도 덤으로 얻는 유익이라고 꼽는다.



_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기를 갈망한다는 신정환 형제는 조용히 섬기는 모습만큼 하나님과의 교제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노력한다. 그가 가장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공평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공평하게 햇빛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밖,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고 계심도 기억한다. 세상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한다. 그의 열정의 원동력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다져진 하나님과의 견고한 만남을 통해서이다.

주 중에도 에녹 봉사와 청년부 기도회와 리더 모임, 찬양 연습 등... 몇몇 부서에서 다양한 시간대의 봉사를 하는 것이 힘들거나 지칠 법도 한데, 그에겐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보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신도 성장하므로 힘들거나 마음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청년의 때를 지나며 가지는 여러 소망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두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의 비전은 미디어, 디자인 분야에서 종사하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 분야를 섬길 때 가장 기쁨이 크고 봉사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고 있다고 한다.

신정환 형제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맡은 자리를 지키므로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그는 청년부 공동체를 향한 소망이 있다.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고 채워주는 공동체, 사역자들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소망뿐 아니라, 최근 한인 교회에 청년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청년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지만, 청년들에게 맞는 '재미'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한다. 청년들의 눈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교회 모습들이 틀

에 박히고 고리타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더 재미있는 곳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재미는 있으나 물론,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즐거움으로 청년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스스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예로 현재 우리 비전 청년부에서 캠퍼스 사역을 준비 중인데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통 방식으로는 접근보다는 젊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또한, 예배에서도 획일화된 교회 음악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찬양 예배가 청년 대학부 전도에 유익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양한 부류의 젊은이들이 교회 문화에 관심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교회 문화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진심어린 형제의 마음이다.

분주하고 경쟁적인 이 시대에 외면의 아름다움, 물질적 풍요, 커리어의 성공 등 청년들의 삶을 유혹하는 손길은 허다하다. 이러한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과 성공은 과연 무엇일까?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힘이자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다. 아름다운 청년, 신정환 형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시대 크리스천 청년들의 비전과 우리 교회를 향한 장래의 소망을 엿볼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 12:1)

취재 한연선, 김정신 / 사진 김홍배

마션 (The Martian)

일 마 전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대흥행이었던 마션(The Martian)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는 화성 탐사를 떠났던 NASA의 아레스 3 탐험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거센 모래 폭풍을 만나 팀원(마크 와트니) 한 명이 조난되는 사고로 시작된다. 나머지 팀원들은 마크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를 남기고 화성을 떠난다. 홀로 남겨진 마크는 화성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될까?

예기치 않은 폭풍으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 마크는 4년 후에 화성 탐사선이 다시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했다. 단 수 주일 치의 식량만을 가지고 있던 그는 제일 먼저 식량을 늘리기 위해 감자를 키워 보기로 한다. 화성의 온도는 매우 낮고, 물도 없으며 모래는 식물을 길러낼 만한 충분한 영양분이 없다. 그는 자신의 식물학과 화성에 대한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감자가 자랄 수 있는 간이 온실 식물 농장을 만들어 감자를 기른다. 감자를 재배하여 수확하면서 생존의 희망이 잠시 지속되었지만 화성 탐험 기지 입구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온실이 폭발하고 재배하던 작물들은 화성의 추운 대기에 노출되어 모두 얼어 죽게 된다. 마크는 말할 수 없이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한 번 맞이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생존을 위해 다시 마음을 추스른다. 매일 해오던 것처럼 화성에서의 생존 일기를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다.

잠시나마 희망을 주던 조악한 화성의 온실과 그 안에서 간신히 재배되던 감자의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떠오르게 하였다. 우리는 화성 온실 속 감자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의 작은 결과물에 만족하고 영원히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다가 삶에서 온실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나면 화성같이 황량한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나는 이때 심한 절망 가운데 어느 때처럼 영상 기록을 남기는 마크를 보면서 인간의 간절한 기도를 떠올렸다. 간절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모습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닮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홀로 남겨진 외로움, 누군가가 녹화된 영상을 보고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영원한 삶을 바라는 우리의 기

도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주인공은 그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니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한편, NASA 본부에서는 그를 구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애를 쓰고, 아레스 3 탐험대 대원들도 죽은 줄만 알았던 동료 화성에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그를 찾아 위험천만인 구조의 길에 나선다. 화성에 남겨진 주인공 마크는 지구에서의 이런 노력을 알 길이 없었고 단지 생존투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NASA 본부와 통신하는 법을 깨닫게 되며, 구조의 희망이 현실이 된다. 잃어버린 자가 구조되기 위해서는 생존과 함께 본부와의 소통이 가장 큰 과제였다.

이 영화의 기쁨의 순간에 나는 에덴 밖에 버려진 인간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이 교차했다. 그리고, 주인공이 NASA 본부와 통신하는 법을 발견한 후 구조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한 후에야 하나님과 소통하며 구원을 얻게 된 것임을 떠올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우리를 구조하기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영화의 마지막은 극적으로 구조된 마크 와트니가 지구로 귀환해 은퇴 후, 후진 우주인을 양성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수업을 마친 후 캠퍼스를 걷던 그는 발밑에 자라고 있는 풀 한 포기 보며 화성에서의 일들에 대한 회상에 잠기며 영화는 막이 내린다.

글 안중훈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kepc.org / Tel. 408.263.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박용갑
기획	김정신
진행	한연선/김정신/한 혁
사진	김홍배/김범진/윤영숙/박종현 안종훈/여환승/김기홍
교정 및 번역	정현주/정은하/안혜원
편집디자인	김은경/김유경/한 혁/이지은